

# 연중 7주일<다해>화답송

시편 103(102), 1-2.3-4.8과 10.12-13(© 8ㄱ)

손상오 신부 작곡

느리게

(후렴)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

*Fine*

1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 라
2. 주님은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 고
3.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 며
4. 주님께서는 해뜨는 데가 해지는 데서 먼 것 처 럼

내 안의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 라  
 네 모든 아픔을 낮게 하시는 분  
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도 다  
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도 다
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 라  
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 고  
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 고  
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없이 여기 듯

주님께서 해 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 라  
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시로 다  
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도 다  
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없이 여기시 다

*D.C.*